

만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고 선정된 사람이다

성경말씀: 벰전2:9

지난 2년 동안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에 애국 활동을 하느라 우리의 내면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낙태 등을 반대하는 것 당연, 외적인 액션 당연, 그러나 밖의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내적인 변화 등에 소홀했음.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김남준 목사님) 책 강해. 기본기 확립, 지난주,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리스도인,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리는 일 여러 가지 외적 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철저한 자기 무장 꽃샘바람, 읽고

이 바람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이다.

혹시 우리의 완악함, 패역함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바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세찬 풍파가 와도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확고하게

왜 아무렇게 사는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 <그리스도인은 삼여를 받고 선정된 사람이다>

선정된 세대

벰전2:9, 그리스도인들은 선정된 세대, (택하신 족속), 선정된 이유(사명)가 있는 사람

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사는가? 선정될 때 부여받은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패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 뒤에는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산다.

베드로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목적, 1.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 2.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널리 전하는 것(2:9)

찬양이라는 말: 탁월함, 오늘은 선정된 세대의 의미, <그리스도인은 선정된 사람이다>

세대라는 말: 한 조상의 핏줄로 연결된 후손, 한 왕의 통치를 받는 동일한 문화를 갖는 백성

영어로는 generation: 대단히 중요한 말, 누구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창5:1, 아담의 세대들, 마1:1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세대들이 있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한 세대만 있다. 모두 형제자매

그래서 우리는 선정된,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시22:30; 사53:8)

그러니까 여기의 세대는 머리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 과거, 현재, 미래

마16:18,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하신 세대라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징표(표지)가 있는가?

쉬운 말: 외부의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무언가가 달라”라고 하는 점이 있는가?

주일성수, 직장 신우회, 가정 행사에 목사 초대 예배 등, 이런 것 말고 다른 독특한 표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독특한 표지

주후 1-2세기 기독교가 퍼져나갈 때 외부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폴리갑의 순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테르툴리아누스: 그들은 제3의 족속이다.

클레멘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며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족속

즉 외부 사람들의 평가: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양식은 다시 사람들에게 독특한 인상을 주었다.

당시 유대인들: 1500년 동안 내려온 모세의 율법 규정 준수, 안식일 할례, 음식 규정 등

당시 이방인들: 우상숭배, 간음과 음행(살전1:9)

그런데 새로운 생활양식, 세계관, 인생관을 가진 무리들 등장(고전10:32)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선정된 세대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 고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평가,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구별, 존재적 특성

오늘날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독특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다.

자기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보여 주어야 할 것: 단지 종교적 문화적 관행이 아니다. 십일조, 새벽 기도, 주일 성수 등 다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창조, 동성애, 낙태, 정부의 형태 등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향, 양상이 달라야 한다.

존재의 울림이 있으려면: 인간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 확신하고 그 사상을 따라 일관성 있는 삶을 살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존재의 울림은 사상과 관련이 있다. 불신자 가운데도 존재의 울림이 있다. 사상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김남준 목사님의 예, 고등학생 사찰 방문, 짧은 스님에게 물었다. “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사느냐?” 스님의 말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결국 학생은 돌아가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절에 들어가 60년을 살았고 당시 경험담을 책에 적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다. 그 학생은 그 스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존재의 울림을 받게 되었다. 그의 삶이 바뀌었다.

물론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성철, “부처는 사탄입니다.”를 외친 구원받지 못한 자
누가복음 5장 1-9, 베드로와 제자들, 8과 9절

예수님에게는 존재의 울림이 있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바울도 주님을 만나 변화됨, 존재의 울림
세상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일을 한 사람들은 다 존재의 울림이 있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악한 울림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존재의 울림을 주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선정하셨다(세상의 빛 마5:14).

성경을 통해 탁월한 진리와 사상 그리고 사랑이 나와야 한다.

이것들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라. 나라나 민족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다(신7:7). 크기로 보면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몽골 제국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 주는 국가(사42:6; 49:6)
출19:5-6, 렘11:4

십자가에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됨

그리스도인의 출현, 이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함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함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울림이 그들에게 파고 들어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바울, 삭개오, 우물가의 여인, 창녀와 세리들, 어부들 농부들,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의 세상: 교회를 비난한다.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비난을 받는 경우도 많다.
세상 역사에 늘 그러하였다.

교회의 고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 나쁜 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김남준 목사님의 진단: 큰 기업에 비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기업이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비슷하다.

기업: 나쁜 일, 비리, 평판, 주가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 문제, 이미지 개선, 물의를 일으킨 사람 징계, 임원진 교체, 문제가 된 사업 혹은 사업장 폐쇄, 광범위한 설문 조사, 달동네 방문, 연탄 배달, 언론에 적극 홍보,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바꿈

오늘날 교회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 교회의 모든 노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잘못된 부분 반성하고 고치는 것은 좋은 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지 개선을 통해 감동을 줄 수 있으나 오래 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한 선행은 상품과 같이 사라진다. 일종의 모조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물어야 한다(계2:5). 에베소 교회 또 교회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

신자의 존재와 선포의 사명

세상을 향한 선포: 언어의 선포와 존재의 선포

말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항구적 사명(행20:21)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해야 한다. 딤후4:2

그런데 진리는 단순히 말의 선포로 끝나지 않는다.

말로 선포한 복음이 힘을 발휘하려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존재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의 사람됨이 같이 올려 나가야 한다(마5:13-14).

김남준 목사님의 진단: 현시대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 존재의 울림을 들려주는 일에 관심이 없다.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설교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구원에 대한 촉구도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단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많다. 오랫동안 목회한 분의 관찰 결과

구원을 받았어도 성화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부수고 하나님의 형상에 다가가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성화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존재의 울림이 없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존재의 울림 가능

성경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좋은 재능을 습득하고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의 울림이 없는 것에 대해 책망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사람의 특징: 이 세상을 본받고 따르지 않는다. 살아 있는 언어(롬12:2)

현시대 크리스천 문화라는 것: 다 세상을 따르는 것, 교회는 그 이상의 고상한 것을 주어야 한다.

1. 세상과 다른 사상 체계를 가져야 한다. 신학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정치 사회 경제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 사상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2. 세상과 다른 사람의 방식: 세상 속에 살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은 생명에서 나오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한다. 생활 방식이 나와야 한다(빌3:2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존재의 울림을 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지속적인 영적 침체를 겪는다.

지속적인 영적 침체를 겪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의 울림을 보여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상,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결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분의 후손들,

선정될 때 사명이 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생각, 사상, 삶의 방식, 인생관, 세계관이 바뀐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

이래야 말씀 선포가 먹힌다. 존재의 울림이 있어야 말씀 선포가 먹힌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존재의 울림을 낼 수 있다.

그 결과 형제들 사랑